

현시와 표상¹⁾

정 성 호 (동국대)

머리말

철학적 탐구는, 그것이 분석이거나 설명이거나 간에, 인간과 세계에 관한 건설적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한, 신비에 의지하거나, 순환이나 무한소급에 빠지게 된다. 신비를 피하려다 보면 순환이나 무한소급에 이르고, 순환이나 무한소급을 범하지 않으려다 보면 소위 신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철학적 탐구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것への 선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될 만하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의 단면은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상지칭(objective reference) 혹은 심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리론, 즉,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지칭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토마스 리드(T. Reid)에서 비롯하여 브렌타노(Brentano)를 거쳐 치즘(Chisholm)에서 체계를 이룬 현시적 심리론(presentational theory of mind)이고²⁾,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원으로 하여 칸트를 거쳐서 포도어(J. Fodor)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표상론(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이다. 현시적 심리론은 어떤 대상이 일정한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마음에 주어진다는 이론인데, 브렌타노의 지향성(intentionality)의 개념이 그

-
- 1) “현시”와 “표상”은 각각 “presentation”과 “representation”의 번역인데, 영어 표현의 시각적 대비가 두드러진다. 동국대 철학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 2) 치즘의 대상지칭론은 ‘귀속론(attribution theory)’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는 표상론과 대비된 현시론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의 *The First P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1)의 제 4장 참조.

핵심을 이루고 있다. 표상적 심리론은 관념이나 개념과 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대상이 의식에 드러난다는 이론인데, 포도어의 '사고의 언어(language of thought)'의 가설 이후 인지심리학과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시론의 난점은 소위 '신비'에³⁾ 의존함에 있으나, 표상론은 순환이나 무한소급의 오류를 피하기가 어렵다. 두 이론 가운데서 어느 것도, 대상지칭의 문제에 만족스런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신비'에 의존하긴 하나 현시론이 표상론보다 더 바람직한 심리론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하나는 현시론이 제거적 물리주의에 대항하여 상식적 심리론 혹은 믿음/욕망이론을 견지하는 데 표상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상은 결국 현시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지칭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현시론의 적합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대상지칭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은 1970년을 기점으로 심리적 탐구으로 전환하였다.⁴⁾ 그 계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의 하나는 지향성에 대한 분석철학적 재조명이다. 이에는 1952년 『철학적 연구지』(*Philosophical Studies*)에 “지향성과 기호론(Intentionality and the Theory of Signs)”의 논문을 발표한 이후, 콰인, 셀라즈, 등의 거센 비판적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태도에 대한 분석적 탐구를 견지해온 치즘의 공로가 크다. 다른 하나는, 지향성과 별도로 일어난 기능주의적 그리고 전산적 심리론의 대두에 있다. 퍼트남과 포도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대상지칭의 심리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로 표상이 철학적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심적 표상이 러셀 이후의 지칭의 논의를 변형적으로 계승하거나, 그것을 대체하기까지 하는 것 같다. 최근의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된 철학잡지에 표상론에 관련된 논문이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드물 정도이다. 이와 같이, 표상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은 그것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지칭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표상으로 전환하여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의 성과를 이용한 표상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⁵⁾ 심적 표상이,

3)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임. 이 논문의 23쪽 참조.

4) T. Burge, "Philosophy of Language and Mind: 1950-1990",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01, No.1 (January 1992)

지칭에 대한 언어적 혹은 의미론적 탐구에 지쳤거나, 인지과학의 성과에 자극받은, 많은 '분석'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하여 현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철학자의 수는 매우 적다. 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시론은 개념분석적 접근에 의거하고, 지칭의 대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의 부담을 안고 있다. 마음,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형적 탐구는 인지과학의 성과에 힘입은 경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설명보다 덜 매력적일 수 있다.⁶⁾ 경험과학의 성과가 높은 곳에서 표상론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서양철학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최근에 개발된 자연과학으로부터 심적 내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물리학과 루크의 관념적 표상론, 현대 원자론과 현상주의적 표상론, 그리고 최근의 인지과학과 심적표상론, 등이 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리론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지칭에 대한 개념적 형이상학적 분석의 부담을 안고서 현시론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적 자연과학적 설명을 도모하여 표상론을 수용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일종의 딜렘마로 귀착되는데,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신비에 호소하는 듯이 보이고,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떠돌뿐이다. 과인이 지향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과 치증이 표상론을 대상지칭의 이론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이들이 두 진영의 극단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표상론은 분명히 심리론 가운데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이론 중의 하나이고, 지향성의 개념을 자연주의화 하면서 그에 대한 경험적 과학적 탐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인지과학의 작업과 보조를 맞추면서 인간의 지성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표상론은 물론 근래의 표상론도 대상지칭의 철학적 탐구에 있어서 만족스런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표상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정합적인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S. 스티치의 다음의 문장이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5) R. 재큰돌(Jackendoff)의 『의미론과 인지』(*Semantics and Cognition*)가 전자의 좋은 예이고, S. 스티치(Stich)의 『일상심리학에서 인지과학으로』(*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가 후자에 해당한다.

6) 개념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S. 스티치의 "표상이란 무엇인가?" 참조.

심적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두고 찬반논의가 끊임없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심적표상론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즉, 심적 표상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인가? 어떤 대답이 그 문제에 올바르게 대답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⁷⁾

나는 대표적인 표상론자 중의 한 사람이 이런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 데에는, 표상론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국면에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미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 왔으나, 나는 여기에서, 표상을 현시와 대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시적 대상지칭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⁸⁾

1. 심리론의 문제

마음과 관련된 세 종류의 철학적 문제가 있다. 하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혹은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상태인가?’의 마음의 성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규명에 관한 것이다. 심신이원론, 행동주의, 물리주의, 기능주의 등이 대표적인 이론으로 제시되어 온 소위 ‘심신의 문제’는 심리철학의 전통적인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할 수 있는가?’ 혹은 ‘대상지칭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대상에 대한 지칭의 문제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마지막의 것이다.

그런데 대상지칭의 문제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접근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첫번째 접근은 지칭의 대상을 실재 세계, 특히 감각적 사물에 두고, 대상지칭의 문제를 감각적 지각(perception)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감각적 지각에 대한 인식론적 탐구가 이 접근의 원류이지만, 현대에 이르러 신실재론자들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C. J. 듀카스의 논문, “대상성, 대상지칭, 그리고 감각적 지각”⁹⁾이 이 접근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20세기 신실

7) S. Stich, "What is a Theory of Mental Representation," *Mind*, Vol. 101, 402, 1992, pp.243-44.

8) 정 성호, "현시적 대상지칭론", 『철학』, 1992, 참조.

9) C.J. Ducasse, "Objectivity, Objective Reference, and Percep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 1941.

재론과 무어의 현상주의가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이론이다.

두번째 접근은 지칭의 관계를 마음과 대상 사이가 아니라 언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언어 외적 사물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탐구한다. 에이어의 다음의 말이 이 접근의 정신을 잘 요약하고 있다; “사고가 어떤 대상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을 대상으로 갖는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 데 관한 문제이지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¹⁰⁾ 여기에서 지칭은 ‘언어적 지칭(linguistic reference)’과 동일시 되는데, 특히, 이름, 지시어, 지시대명사와 같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의미에 대한 논리적 혹은 일상언어적 분석을 통하여 언어와 세계 사이의 지칭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이 접근이 프레게의 뜻(sense)과 지칭(reference)의 구분에서 비롯하여, 러셀의 이름과 확정기술구에 대한 분석을 거치고, 크립키의 인과적 지칭론에 이르는 현대분석철학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대상지칭에 대한 세번째 접근은 ‘심리적 접근’으로 불리워지는데, 그 까닭은 지칭을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포착하는 ‘심적 지칭(mental reference)’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심적지칭을 심적 현상이 물리적 현상과는 달리 독특하게 갖는 지향성을 통하여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브렌타노 이후 이 접근은 ‘사고’, ‘의식’, ‘판단’, ‘믿음’, ‘명제태도’, ‘일상적심리학’ 등 다양한 이름 아래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그 핵심은 치즘이 표현하였듯이 “무엇이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당신에 대한 믿음에게 만드는가?”의 문제이다.¹¹⁾

대상지칭의 세 접근 가운데서, 심리적 접근을 택하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인식적 접근은 감각적 지각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칭에 대한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인식가능성의 문제는 인식정당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대상지칭의 내포를 지나치게 확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탐구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언어적 접근은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전산적 심리론에 입각한 표상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택하는 방식이지만, 지칭에 관한 의미론적 설명은 결국 지향성에 의한 설명에 근거하거나 그에 환원되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대상지칭에 대한 근원적 성질을 밝힐 수가 없다. 현대의 언어 분석철학자들에 의하여, 지칭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

10) A. J. Ayer, *Thinking and Meaning*, London: H.K.Lewis & Co., 1947, p. 10.

11) 치즘, 같은 책, 13쪽.

을 제거하고 의미론적 해결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심리적 접근이 1970년대를 고비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상지칭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 심적 상태의 독특한 성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함에 있는데 그 지칭되는 대상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순신을 생각할 때, 지칭의 대상으로서의 이순신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순신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순신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이순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순신에 대한 믿음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물음을 보다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지칭의 문제를 정식화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떤 것, S,가 어떤 것, x,를 대상으로서 지칭하는가?
(How does one thing direct its thoughts upon another thing?)

이 문제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적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의 근거를 탐구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2. 현시적 대상지칭론

현시론은 마음과 세계 사이의 인식적 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론의 핵심은, 대상지칭은 마음에 의한 논리적 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의 기본 요소는 '현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식적 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이라 함은, 심리론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상지칭론을 믿음의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지식론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지칭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한 참되고 정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시라는 심리적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시론이 심리적 접근방식을 택하나,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두 접근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동시에 포섭한다. 즉, 현시론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이면서 포괄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칭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상지칭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

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성립된다. 이 지식으로서의 지칭의 단계를 ‘인식적 지칭(epistemic reference)’이라고 부르자. 인식적 지칭은 마음이 관념의 틀을 벗어나 실재세계에 도달함을 보장해 주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보장은 소위 인식 정당화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것을 ‘인식 정당화’의 단계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정당화의 대상은 믿음이고 그 목표는 진리조건의 확보에 있으므로, 이 단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둘이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진리조건의 확보는 인식적 지칭을 구성하는 필요한 요소이나, 대상지칭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칭은 그릇된 지칭의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식적 지칭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대상지칭의 단계는 기술적 지칭(descriptive reference)으로서 믿음의 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기술적 지칭에 관한 여러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러셀의 명제태도론과 치즘의 귀속론(attribution theory)이 대표적이다.

“믿음은 명제에 대한 태도이다”¹²⁾로 대상지칭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지평을 연 러셀의 명제태도론은 명제를 믿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무시간적 항존체(subsistence)로 수용한다. 그런데 진리 대응론을 견지하는 러셀은, 거짓 믿음의 경우에 거짓 명제를 믿음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거짓 명제가 그와 상반되는 참 명제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난점을 안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명제태도론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¹³⁾ 뿐만 아니라, 명제의 존재론적 위상과 개별화 등과 관련된 난점으로 명제를 지칭의 대상으로 견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편, 명제가 대상이 아니라 심적 표상의 내용으로 간주되어 견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러셀이 의도한 바의 명제태도론과 다르다. 믿음이 명제를 그 대상으로 갖는다는 고전적인 의미의 명제태도론은, 그러나, 기술적 지칭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치즘의 귀속론은 명제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존재론적 경제성이 있고, 러셀이 ‘태도’ 혹은 ‘지시함’으로 표현하였으나 그것의 개념적 설명을 결한 부분을 ‘귀속(attribute)’이라는 지향적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12) B. Russell, "Meinong's Theory of Complex and Assumption," *Essays in Analysis*, ed., by D. Lackey, (New York: George Braziller, 1973), p. 75.

13) B. Russell, "On the Nature of Truth and Falsehood," *Philosophical Essay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01.

서 심리적인 것을 제거적 물리주의로부터 옹호할 뿐만 아니라, 심리론의 자율적 영역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대상지칭, 특히 지시적 지칭론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음은 어떤 속성을 어떤 것으로 귀속시키는 관계이다. 즉 'x는 p를 믿는다'의 언사적(de dicto) 태도를 'x는 y가 F임을 믿는다'의 물적(de re) 태도로 환원하고, 믿음을 x가 F와 관련하여 어떻게 y에 연관되는가를 보여 주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치즘은 귀속이라는 심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어떤 속성을 어떤 개별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 심리적 행위이고, 그에 의하면, 이상 더 정의될 수 없는 표현이다. 둘째, x는 x 자신에게 어떤 속성을 귀속시킬 수 있고, 그럴 때 그 행위는 직접적이다. 예를 들어서, 즉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의 속성을 나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어떤 것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즘에 의하면, 'x는 x가 F임을 믿는다'의 자아적(de se) 태도는 직접적인 만큼, 물적 태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¹⁴⁾ 셋째, 속성과 속성 사이에 함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과 차를 마시고 있음'의 속성, F,를 나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치즘에 의하면, 속성 F는 다음을 함의한다. 즉, (i) 내가 차를 마심의 관계, R,을 갖는 것은 오직 어떤 한 사람에게 이고, (ii) 그 한 사람, 즉, 당신에게 '모자를 쓰고 있음'의 속성을 귀속시킨다.

위의 세 원리에 입각하여 치즘은 어떤 것, x,가 어떻게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 y,에게 어떤 속성, F,를 귀속시킬 수 있는가, 즉 간접귀속에 의한 기술적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x가 속성, F를 y에게 간접적으로 귀속한다 =df 어떤 관계, R이 있는 바,
 (a) x가 오로지 y에게만 R을 맺고, (b) x가 y에게 직접으로 어떤 속성 P를 귀속시키는 바, (i) P를 가진 것은 무엇이나 F를 가진 어떤 것에 관계, R을 맺고, (ii) P를 개념적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F임을 받아 들이고, 그리고

14) 이는 '자아의 지칭적 우월성'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참조: H-N Castaneda, "Indicators and Quasi-Indicators" *Americal Philosophical Quarterly*, 4(1976).

(iii) F를 그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도 P를 그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가 있다.¹⁵⁾

철수가 붉은 옷을 입은 영이와 나란히 앉아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철수는 자기 자신에게, ‘붉은 옷을 입은 어떤 것과 나란히 앉아 있음’의 속성 혹은 관계를 그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수가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속성을 귀속시킬 때에는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철수가 그 속성을 그 자신에게 귀속시키면, 그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있음’을 영이에게 귀속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철수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속성이 함의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하다. 즉, 그 속성은 오직 어떤 것 하나와만 나란히 앉아 있음의 관계가 맺어 지고, 붉음이 있는 곳에는 색깔이 있고, 붉음을 감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색깔을 감지하므로, 나란히 앉아 있는 어떤 것이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이 영이인 경우, 철수가 영이에게 색깔있는 옷을 입고 있음의 속성을 귀속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치즘에게 있어서, 기술적 지칭은 개별화의 관계(identifying relation)와 속성의 귀속이라는 지향적 행위(intentional activity)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지칭의 태도(de se attitude)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위에서 언급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치즘은 기술적 지칭을 ‘x는 어떤 속성, F를 그 자신에게 귀속시킨다’의 지향적 행위에 근거해서 규명하는데, 그 때 그는 그 행위를 정의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속성을 귀속시킬 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치즘의 가정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시키는 속성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 속성은 이미 철수 자신이 아닌 어떤 개체와, 그것이 붉은 옷을 입고 있음의 사태와, 철수 자신과 나란히 앉아 있음의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철수가 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속성 가운데는 철수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속성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철수가 어떤 것에 붉은 옷을 입고 있음의 성질을 귀속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붉은 옷을 입은 어떤 것과 나란히 앉아 있음’의 속성을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서, 그 어떤 것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속성

15) R. Chisholm, "Self-profile."

에 이미 지칭될 대상이 포함되어서 직접적으로 주어짐으로 지시적 지칭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대상지칭의 이론의 핵심은 ‘어떻게 마음이 마음 밖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치즘의 귀속론이 이 점에 만족스러운 이론을 제시하는지를 검토해보자. 치즘의 전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속성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속성이 마음 외부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속성과 마음의 외부에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어떻게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 이 질문은 대상지칭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치즘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위의 정의의 (a)에서 보이듯이, 개별화의 관계의 가정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대상지칭의 문제에 대한 치즘의 표현을 다시 보자: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당신에 대한 믿음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오로지 당신에게만 어떤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의 정의 (a)에 이미 당신이 오로지 나에게만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개별화의 관계가 가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대상지칭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기술적 지칭은 마음이 어떤 사태(state of affairs)를 지칭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사태는 그것이 발생했을 때 사실로서 나타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 거짓 명제로 규정되는, 사실과 거짓명제 사이에 있는 논리적 구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 즉, 사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론의 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나, 사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비사실을 대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보장해 주는 존재의 한 유형이다.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 나의 믿음의 대상은 사태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말이다. 사태는 개별화된 어떤 것에 어떤 속성을 귀속하여, 즉 지향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논리적 구성체이다. 여기에서 ‘논리적’이라 함은 개별화된 어떤 것과 어떤 속성이 각각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와 술어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논리적 요소, 즉, 긍정, 부정, 양화, 등과 적절하게 구성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사태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지향적 행위에 의해서 이다. 사태는 그런 면에서 명제와 구별된다. 명제는 추상적 존재로서 영원하나, 사태는 그것이 구성됨으로써만 존재한다. 명제는 진리담지자로 간주되나 논리적 구성체로서의 사태는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부른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속성이 어떤 개별체에 예시되어(exemplified) 발생한 것이다. 기술적 지칭은 명제나 사실이 아니라 사태를 대상으로 갖는 지향적 행위이다.

그런데, 기술적 지칭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사태를 대상으로서 구성함에 의해서 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태를 대상으로서 구성할 수가 있는가? 즉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상으로 갖는 사태가 우리 외부의 것에 관한 것일 수가 있는가? 즉 치증이 귀속론에서 가정한 개별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닦아 온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개별화(identification)는 현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화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x 는 S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개별화된다 =df x 는 S에게 현시된다.¹⁶⁾

여기에서 잠시 개별화의 원리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 x 가 S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나는 x 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속성이나 관계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개별화한다. 내가 당신을 개별화할 때, 나는 당신과 관련된 어떤 속성이나 관계에 의거해서 당신을 개별화한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적 속성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속성이나 관계는 어떻게 개별화되는가? 다른 속성이나 관계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무한히 소급하거나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무한소급이나 순환에 빠지는 개별화는 개별화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신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속성이 관여하지 않는 개별화가 전제되지 않고서 개별화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것만을 우리의 의식의 대상으로 개별화하고 있다. 자체 개별화(individuation de se)는 개별화의 기본 원리로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¹⁷⁾

그 자체로서 개별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속성이 관여하지 않고 개별화

16) 다음의 영어 문장이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x is identified as an object by S =df x is presented to S.

17) 참조: Chisholm, "Individuation: Some Thomistic Questions and Answers," *Grazer Philosophical Studies*, 1 (1975).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나에게 현시됨으로서만 가능하다. 현시되는 어떤 것은 속성과 무관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현시될 때, 당신이 가진 어떤 속성이나 당신의 나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현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지 어떤 것으로 나에게 현시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나에게 현시될 경우나 당신이 아닌 어떤 것이 나에게 현시될 경우에, 그 사이의 속성과 관련된 차이는 없다. 내가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나의 지칭의 대상으로 포착될 때, 나는 음악을 좋아함의 속성을 통하여 당신을 어떤 것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시된 것에 음악을 좋아함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신이 나의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당신에게 음악을 좋아함의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자체로서 혹은 속성과 무관하게 개별화되는 단계, 즉 어떤 것이 현시되는 지칭의 단계를 “지시적 지칭(demonstrative reference)”이라고 부르자. 그것이 지시적인 까닭은, 어떤 것이 현시될 때 우리는 지시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현시될 때, 현시되는 것은 언제나 있으나,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시된 것에 어떤 속성이 부과될 때, 그 현시된 것은 특수체(particulars)로 포착된다. 개별화되지 않고서 특수화될 수 있는 것은 없다. 특수화는 개별화의 관계에 속성이 부과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되풀이 해서 말하면, 대상의 개별화는 현시가 보장하고 대상의 특수화는 속성의 부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과된 속성이 예시되는 경우, 특수체는 개별체(individual thing)로서 지칭되고, 그 지칭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된다. 어떤 것이 현시되었을 때, 만일 내가 학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부과하고, 그 현시체에 그 속성들이 예시되면, 나는 실재하는 학을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다. 만일 그 속성들이 예시되지 않으면, 나는 실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학으로 잘못 지칭한 것이다. 만일 내가 봉황에 속한 속성을 부과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봉황을 대상으로 지칭하였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고의 대상, 혹은 지향적 대상을 개별체로 간주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개별체가 대상으로 있음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브렌타노는 ‘즉자적 대상성’의 개념을 도입해야 했고, A. 마이농(Meinong)은 심지어 등근사각형도 지향의 대상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을 비존재(non-being)와 존재(being) 사이의 어느 곳에 있다고 추측했다. 그

러나, 지향적 행위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개별체가 아니라 현시체이다. 현시체에 부과된 속성이 예시된 경우에 우리는 존재하는 개별체를 대상으로 지칭한다.

어떤 것이 개별체로서 지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술적 지칭의 단계에 속한다. 즉, 지시적 지칭에 의해서 포착된 어떤 개별체에 어떤 속성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태를 구성하는 것이 기술적 지칭이다. 반복하지만, 그 속성이 그 개별체에서 예시되면, 사실에 대한 지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논리적 구성체로서의 사태에 대한 지칭이다. 이런 의미에서, 속성의 부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시체에 부과되는 속성은 특수체를 이루고, 특수체나 개별체에 부과된 속성은 사태를 구성한다. 그 두 단계사이의 논리적이거나 존재론적 차이는 없다. 만일 있다면, 우리의 일상적 언어 사용과 관련된 명사와 술어 사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현시체에 부과되는 속성은 명사로 표되고 개별체에 부과되는 속성은 술어로 표현된다.

그러면, 속성은 무엇인가? 속성은 우리가 현시체와 특수체 혹은 개별체에 부과하는 추상적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붉음의 속성과 붉은 것의 개별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붉은 것은 어떤 현시된 것에 붉음의 속성이 부과된 특수체이다. 우리의 존재론에서는, 현시가 개별화를 보장하고 속성이 특수성을 드러낸다.

현시체에 부과하는 속성은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속성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conceive) 것이다. 마음으로 품는 것은 무엇이나 속성이고 속성만이 마음에 의해서 품어진다. 우리는 붉음의 속성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나, 붉은 어떤 것(개체)을 마음으로 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마음으로 품는 것은 지칭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칭은 언제나 현시를 전제하는데, 마음으로 품는 것은 현시를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현시의 한 변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속성이 현시될 수 있는가? 나는 위에서 어떤 속성에 의거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개별화될 때, 그것은 현시된다고 말했다. 속성도 따라서 현시될 수 있다. 그런데 속성이 현시될 때에는, 것(thing)으로가 아니라, 그러함(so 혹은 such)으로 현시된다. 다시 말하지만, 속성을 마음으로 품음은 현시의 한 변형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현시를 두고 “내적 지각(inner perception)”이라고 부르고, 변형된 방식의 현시를 두고 “개념과악(conception)”이라고 불러 왔다고 생각한다.

마음으로 속성을 품는 일은 현시의 한 변형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화를 보장하지 않는 현시는 현시가 아닌데,

속성을 품음은 개별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 마음에 품어질 때, 거기에는 개별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붉은 것에 대한 개별화는 가능하나 붉음에 대한 개별화는 불가능하다. 마음으로 품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그러함’의 분류의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붉음이 붉음으로서 다른 어떤 속성에 의거하지 않고 현시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붉음이 그러함으로 다른 그러하지 않음으로 부터 분리되는 행위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⁸⁾ 다만, 추상적인 것을 마음으로 품음은 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변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속성에 의거해서 그러하지 않고서 그렇게 됨으로 현시의 한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시를 통하여 지칭의 성질을 규명하려는 나의 시도는 돌이켜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언어의 사용과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이 점을 다른 영역에서나 방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의 일상언어를 살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별화의 단계의 지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것”, “이것”, “저것”, “어떤 것”, 등이 있다. 이 표현들에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속성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것”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의 것은 “이런 것”, “저런 것”, “어떤 것” 등에서 보듯이, 어떤 속성을 갖거나 부여받기 이전의 것이다. 이 점은 영어의 일상적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힌다(Something bothers me)”,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I don’t know what it is)” 그리고 심지어 “비가 온다(It is raining)”, 등의 문장에서, “it”와 “thing”은 어떤 속성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자에게 직접으로 현시된 것을 표현하는 지시어이다.

브렌타노는 심적현상을 현시, 판단, 느낌의 세 단계로 나누고 현시를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시의 행위는 판단의 행위 뿐만 아니라, 욕망을 포함한 모든 심리적 행위의 기초를 형성한다. 어떤 것도 현시되어지지 않고서 판단, 욕구, 희망되거나 두려워질 수가 없다.”¹⁹⁾

18) 무어가 『도덕의 원리』에서 “선”을 “붉음”과 같이 정의불가능한 개념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나, 그 설명의 기반은 다르다.

19) F. Brentano,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ed. & trans., by

현시가 모든 심리적 행위의 기초라는 말은, 브렌타노에 의하면, 심리적 행위의 특성은 지향성에 있으므로 현시가 지향성을 설명하는 기초개념이라는 말과 같다. 대상지칭의 가장 기본적 단계를 현시라고 보는 나의 입장은 브렌타노의 이러한 입장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시를 대상지칭의 기초개념으로 도입하고자 하면, 우리는 (i) 현시는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 그리고 (ii) 현시되어지는 것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 그는, 현시를 현시의 대상이 아니라 현시의 행위로 간주하고 “어떤 것이 중요되거나 애호되거나... 긍정되거나 부정되거나 간에... 어떤 것이 의식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언제나 현시의 행위가 발생한다”²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현시됨’을 ‘의식에 나타남’과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어떤 것이 의식에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현시된다 라고 말하는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²¹⁾라고 덧붙였다. 모든 정신적 행위가 현시에 기초하여 있으므로 현시를 설명할 보다 더 기초적인 심리적 행위는 없다는 것이다. 즉, 현시는 더 이상 분석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나는 브렌타노의 이 입장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시는 속성에 의거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내용을 통하지 않은 지칭의 단계라는 나의 주장은 브렌타노의 지향성의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번째의 문제에 있어서 브렌타노는 후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혼란된 주장을 하였다. 먼저 그는 우리가 현시된 것을 감각적 지각이나 상상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말함으로써²²⁾ 심리적 행위에 있어서의 현시의 근원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오히려 감각적 지각이나 상상이 현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야 그의 주장의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현시의 대상으로서, 감각적 지각의 경우에는 소리, 색깔있는 사물,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상상의 경우에는 개념을 들기도 한다.²³⁾ 뿐만 아니라, 브렌타노는 현시의 대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 가운데

Linda L. McAlister, New York: Humanities Press, 1973, p. 80.

- 20) 앞의 책, 같은 쪽.
 21) 앞의 책, 81 쪽.
 22) 앞의 책, 81 쪽.
 23) 앞의 책, 같은 쪽.

하나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감각적 성질이나 사고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칭함에 있어서 내용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만일 우리가 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는 ‘생각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을 지향의 대상으로 갖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각된 말’이 아니라, 오직 말만이 대상이 될수 있다”²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고의 대상이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실재세계 속에 있는 개체에 있다는 주장은 감각된 성질이나 사고의 개념을 대상으로 갖는다는 이전의 그의 주장과 상반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브렌타노는 “사고의 대상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하는 사고하는 그 사람뿐이다”²⁵⁾라고 말함으로써 현시의 대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럿셀은 ‘현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지칭론 혹은 이름론에 있어서 현시에 해당하는 개념이 다른 방식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의 지칭(이름)론의 핵심을 보자: (i) 우리는 직접으로 접한(acquaintance) 것에 대해서만 이름할 수 있다. (ii) 적절한 이름은 개별체에 관한 것이다. (iii) 따라서 우리는 직접으로 접한 개별체에 대해서만 이름할 수 있다. (iv) “소크라테스”와 같은 고유명사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구의 줄인 표현에 불과하다. (v) 결국, 논리적으로, 즉 위의 논리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이름은 “이것(this)” 혹은 “저것(that)”과 같은 지시어 밖에 없다.²⁶⁾

여기에서 럿셀의 이름론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럿셀이 말하는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은 위에서 제시한 지칭의 기본적 단계로서의 현시와 그 정신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럿셀은 언어적 접근에 입각해서 마음이 외부 세계에 이르는 논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 그래서 그의 이름론이 ‘논리적 원자론’의 핵심으로 제시되지만 -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으로 제시한 반면에, 나는 위에서 심리적 접근에 입각해서 마음이 외부 세계에 이르는 심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현시’로 제시한 것이다. 럿셀에 의하면, 고유명사는 기술(description)이 그 의미이지만, 이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24) Brentano, *The True and The Evident*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1966), p. 27.

25) F. Brentano,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p. 323.

26) 참조: B. Russell,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Illinois: Open Court, 1985.

요소인,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논리적 원자론이 주장하는 바, 즉, 논리적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 사이의 일치의 가설을 첨가하면, 혹은 그의 언어적 표현을 형이상학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은 내가 위에서 제시한 속성에 의하지 않고 현시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름을 구성하는 논리적 두 요소, 즉 직접 접합과 특수체의 성질을 고려해 보면, 러셀의 이름(지칭)론이 나의 현시론을 지지하여 증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수체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러셀은 특수체를 순수히 논리적인 것으로 정의하는데²⁷⁾, 그것은 원자적 사실에 있어서 관계를 구성하는 항이다. 이 항은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이상 더 분석될 수 없는 것이다. 러셀의 ‘항’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내가 여기에서 ‘것’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전자는 논리적 표현이요 후자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는 것 뿐이다. 직접접합도 마찬가지이다. 러셀이 직접접합으로 이름의 언어적 행위의 실재론적 국면을 포함하려고 한 것을, 나는 현시로 지칭의 심리적 행위의 실재론적 연관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러셀이 말하는,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지칭에 관한 이론의 핵심에 해당함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러셀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놀랍게도 러셀은 이 중요한 물음에 침묵을 지킨다. 그가 침묵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을 가능하게 하는 두 요소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직접접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러셀이 제시한 것을, 과문의 탓인지 모르나, 어디에서도 본 일이 없다. 특수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셀은, “우리가 특수체를 이 실제적 세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견하는가의 물음은 순수히 경험적인 것으로 논리학자가 관심을 둘 바가 아니다”²⁸⁾라고 말한다. 물론 어떤 특수체를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나, 이름(지칭)론을 제시하면서 이름함(지칭함)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나 설명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셀이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지시어 “이것”을 “여기 이곳에”의 의미로 분석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통하여 어떤

27) Russell,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Illinois: Open Court, 1985, p. 60.

28) Russell, 위의 책, 60 쪽.

것을 이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릿셀의 이름론을 매우 제약하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으로 릿셀이 의도한 바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시는 릿셀의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속성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된 두 난점은 생기지 않는다.

나는 릿셀이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침묵하고, 그 이름의 요소인 직접접합과 특수체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인식적 그리고 언어적 접근에만 머물고, 그 보다 더 근원적인 심리적 접근으로 이름(지칭)론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에서 제시된 현시론으로 그의 직접접합과 특수체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접합이란 대상이 감각적인 속성을 갖고 그 속성이 실재에 있어서 예시된 경우에 일어나는 현시의 결과이다. 그리고 특수체란 속성이나 내용에 의거하지 않고 개별화된 것, 즉 현시체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이름이 아닌 까닭은, 우리에게 현시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현시되고,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로서 현시될 수 없으므로, 소크라테스는 현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신 철학자’의 기술의 축약임은, 현시된 어떤 것에 ‘독약을 마심’과 ‘철학자임’의 속성이 귀속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것이 독약을 마시고 철학자이다’ 라는 사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크립키의 인과적 이름론과 고정지시어의 개념도, 현시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현시에 의거할 때에 지칭에 대한 더욱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름의 인과의 연쇄의 시발점에 자리하고 있는 소위 ‘명명식(baptism)’은 어떤 개체를 앞에 두고 고유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 이름부여의 행위에는 어떤 내포나 기술이 개입되지 않는다. 앞에 놓인 어떤 것을 향해서 단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름을 붙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명명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라고 지적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가능한 세계에서도 ‘이것’이라고 지적되어진 것만을 지시하고 그럼으로써 고유이름은 고정지시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의 사용의 연쇄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아리스토텔레스만을 지칭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크립키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릿셀이 말한 것처럼 기술의 축약이 아니다.

크립키가 ‘고정지시어’ -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것만을 지시하는

표현 - 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현시와 같은 문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표현이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것만을 지시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표현과 그 대상 사이의 지칭의 관계를 무너뜨릴 어떠한 반사실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표현과 지칭 사이의 관계의 반사실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은, 그 관계가 어떤 다른 내용이나 속성에 의해서 뒤틀린 때일 것이다. 반사실적 상황이란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에 속성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음의 반사실적 상황이란 나에게 귀속된 글씨의 속성이 예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사실적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속성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나, 속성이 관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자의 상황은 논리적으로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속성의 침삭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성이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속성과 관련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위에서 내용이나 속성에 의하지 않고 지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현시라고 말했다. 내용이나 속성에 의하지 않고 지칭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고정지시어는 현시와 같은 문맥에 있다.

그런데, 크립키의 인과적 이름론이 대상지칭에 대한 적절한 이론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언어적 표현과 대상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초의 명명식에서 어떻게 지칭의 대상이 고정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크립키가 제시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명명자는 그가 이름하는 사물을 어떤 의미에서 직접으로 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물적으로(ostensively) 이름할 수 있다.²⁹⁾

우리는 이 대답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어떤 의미에서 직접으로 접함’이 러셀의 실재론적 이름론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어서 그와 동일한 난점을 갖기 때문 만이 아니라, 둘째, 그의 말이 어떤 이름이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9) S. Kripke, *Naming and Necessit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p. 96n.

즉, 크립키의 인과적 이름론은 대상지칭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대상지칭을 이미 그 속에 가정하고 있다. 크립키의 이름론이 대상지칭에 대한 설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철학적 탐구도 대상지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설득력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름이나 지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름하거나 지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크립키의 인과적 이름론이 이름(지칭)에 대한 포괄적이고 만족스런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칭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나는 대상지칭의 기본적 단계로서 현시적 지칭을 제안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언어의 사용과 부합할 뿐만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의 이론과도 보조를 같이 하며, 현시론이 그들의 이론의 결점을 보완하는데도 기여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현시적 지칭론 역시 대상지칭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난점을 갖는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떤 것이 속성이나 내용에 의하지 않고 개별화될 때, 즉 현시될 때, 어떻게 현시가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현시된 것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의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하여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개념적 분석에 관한 것이지 경험적 설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것이 심리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상 더 분석할 수 없는 개념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에 현시되는가는 심리적 현상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로 그것을 설명할 다른 심리적 현상이나 용어가 없다. 적어도 대상지칭에 대한 심적 접근에 있어서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즉, 현시에서 마음과 마음 밖의 것 사이의 지칭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시의 밑바닥을 들추어내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게 되면, 심리적 접근의 영역 밖으로 나가거나, 순환이나 무한소급으로 빠져들 것이다.

현시적 지칭론의 두번째 난점은 현시된 것의 존재론적 위상이다. 내용이나 속

30) 크립키의 이름론을 표상론으로 간주한 스테르니도 유사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크립키의 인과적 이름론이 “매우 복합적인 감각적, 지향적, 그리고 언어적 능력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표상적 능력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참조: Sterelny, Kim, *The Representational Mi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Co., 1990, p. 115.

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 즉 현시체는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나는 위에서, 현시체는 사과, 책상, 이순신, 등과 같은 개별체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는 사과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현시되지 않는다. 사과는 이미 많은 내용이나 속성을 포함한 개별체로서 감각적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착된다. 현시체는 내용이나 속성 이전에 우리의 의식에 드러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중간 크기의 사물과는 다르다. 내가 사과라는 개별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속성이 귀속될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현시체란 그런 어떤 것이지 개별체는 아니다.

다음, 현시체는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이거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시체는 마음 밖으로 부터 현시된 것이지, 마음이 그 자신에게 현시시킨 것이 아니다. 특히 낱말이나 개념이³¹⁾ 관념은 더욱 아니다. 내가 사과를 생각할 때, 나의 사고가 지칭하는 대상은 사과이지 “사과”라는 낱말도, 사과의 개념이나 관념도 아니다. 토마스 리드가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사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에 대한 사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면, 현시체는 마음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마음에 현시되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현시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시체는 마음이 그것으로 향해 있는 동안에 존재한다.³²⁾ 현시체의 존재론적 위상을 마음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규명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현시체가 존재론적인 어떤 것인가도 의심해 볼 만하다. 개별체도 아니고 속성도 아닌 어떤 ‘것’으로서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론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론적 속성을 가진 것만이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데, 현시체는 그런 속성이 없다. 현시체는 단순히 마음에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것이다. 그것은 유크리트 기하학에서의 점이나, 개별체로부터 속성을 모두 제거하고 났을 때 남는 어떤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의 성질을 말할 수가 없다. 혹은 그것은 존재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실마리, 즉, 존재론적 규정성의 근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³³⁾ 그런 의미에서 현시체의 존재론적 위상을 묻

31) 여기에서 제시된 것과 전혀 다르게, 현시를 이론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양태를 ‘개별적 개념’과 ‘스테레오타입’의 두 종류로 구분한 스테판 쉬프(Stephan Shiffer)의 “The Real Trouble with Propositions,” in Bogdan, R.J., *Belief*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100-114를 참조하시오.

32) 김 영진(동국대 철학과 대학원)의 제안에 감사한다.

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것이 존재론적 위상을 갖게 하는 출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상의 지칭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내가 용을 생각 한다는 것은, 현시된 어떤 것에 비늘이 있음, 날아 다님, 불을 뿜음, 등의 속성을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속성은 실제세계 속에서 예시되지 않는다. 내가 용을 생각할 때, 귀속된 속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나에게 현시된 어떤 것은 지칭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현시된 어떤 것에 속성이 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특수체로 포착한다. 특수체에서 속성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현시된 것인데, 그것은 소위 비어있는 특수체(bare particular)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떤 속성은 예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시된 속성을 성질(quality)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우리는 개별체를 예시된 속성, 즉 성질이 현시체에 귀속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뱀은 개별체이나 용은 개별체가 아닌 특수체로 포착된 어떤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용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개별체가 아니라 어떤 특수체를 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시적 지칭의 단계에서 지칭의 대상은 현시된 것이고, 그 현시된 것에 귀속된 속성은 예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에 우리는 실재하는 개별체를 지칭하고 후자의 경우 허구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수체를 구성함에 의해서 지칭한다. 기술적 지칭의 단계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인식적 지칭은 그것에다 정당화의 조건이 첨가되어 이루어 진다.

3. 표상적 대상지칭론

오늘날 표상적 심리론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을 두고 표상 혹은 표상론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표상(론)의 이름 아래 거의 모든 철학적 문제가 논의되는 듯하다. 앞에서 스티치의 말이 보여 주듯이 표상론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혹은 표상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표상에 대한 일반적 이론은 없고 단지 개별적인 전략들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표상”을 여러 다른 문맥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표상을 수식하는 형

용사로 온갖 종류의 표현들이 동원된다.³³⁾ 이런 상황에서, 표상론을 현시론과 대비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상의 일반적 성질을 찾아 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 다양한 표상론이 그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며, 그 이론들의 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표상(론)은 대상지칭(론)의 한 형태이다. 표상론이란, 인간의 마음이 외부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이 표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시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표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한 이론이 표상적 대상지칭론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상지칭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심리론의 한 영역이므로, '표상적 대상지칭론'을 '표상적 심리론'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둘째, 표상론은 대상에 대한 지칭이 표상이라는 어떤 매개체 혹은 매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어떤 매개를 통하여 대상을 지칭하므로 표상은 이원적 구조를 가진 현시와는 달리 삼원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다양한 표상론이 제시되어 왔다. 셋째, "표상"은 가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것은 삼원적 구조 전체 혹은 그것의 과정이나 작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구조의 한 요소, 특히 중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사용된다. 대상지칭의 한 방식으로서의 표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표상의 본질이 그 매개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후자로 간주되어도 무방할 것이다.³⁴⁾

위에서 대상지칭에 대한 인식적, 언어적, 심리적 접근을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표상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상론의 다양성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표상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철학의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재 속의 존재'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 문제는 기억의 가능성에 대한 역설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33)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Robert Cummins의 E-representation(그의 책, *The Natur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Massachusetts: MIT Press, 1983, p. 46)과 Ray Jackendoff의 #Representation#(그의 책, *Semantics and Cognition*, Massachusetts: MIT Press, 1983, Chapter 1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4) 이 글에서는,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표상"을 후자의 경우에는 "내용"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인상인가, 아니면 그 인상이 그로부터 지각된 바의 (마음 밖의) 사물인가? 전자인 경우에,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후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인상 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직접 지각하지 않고 이상 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³⁵⁾

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표상의 원형과 동시에, 대상지칭에 있어서의 표상론과 현시론의 분기점을 보게 된다.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인상 밖에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은 이미 표상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접적 지각을 논의의 편의상 현시로 대체하면, 그의 표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기억의 대상은 과거의 사건이고, 마음에 현시되는 것은 현재의 인상 밖에 없으므로, 기억의 대상은 현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의 대상은 인상을 통하여 다시 현시되지(re-presented) 않으면 안된다. 그 다시 현시됨, 즉 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즉 어떻게 인상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지칭할 수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물음은 근세에 들어 인식론의 주요 과제로 이어지고, 관념론의 원천이 되었으며, 20세기 비판적 실재론자들의 주된 논박의 목표가 되었다. 다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다.

마음이 사물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하여 마음이 갖는 관념(ideas)의 개입에 의해서 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마음은 그 자신의 관념 이외에 아무 것도 지각하지 못 한다. (로크, 『인간오성론』, IV.iv.3)

세상에 두 종류의 사물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각된 것으로 관념(idea)이라 불리우고, 다른 하나는 관념의 중개로 지각되는 외부의 실제 사물이다. 관념은 그 사물의 인상(image)이며 표상이다. (버클리, 『히라스와 피로누스의 세 담화』)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지각(perception) 밖에 없고, 그리고 (인상에 의해서) 차단되고, 마음에 의존한다.... 인상(impressions)은 내적이고 소멸

35) “인상”은 “impressed affection”의 번역이고, 괄호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첨가한 것임. Aristotle, *De Demoria et Reminiscentia*, in W.D. Ross, ed., *Works of Aristotle*, vol. III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1), 450a.

적인 존재들이다. (흄, 『인성론』, Liv.2)

물자체가 나에게 현시되면 나는 물자체에 포함된 것만을 알 수 있게 되는 데,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속성이 나의 표상의 기능 속으로 들어 올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시된 것에 대한 직관이 나로 하여금 그 사물을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는가? (칸트,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서언』, I, 9)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현재의 인상과 대면한다... 우리는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행위와 동시적인 것으로 마음에 받아 들여야 한다. (러브조이, "The Anomaly of Knowledge")

이상의 여러 인용들이 보여주듯이, 표상의 문제는 오랫동안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을 중심으로 한 인식적인 접근에 의해서 규정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많은 인식론자들이 그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인식적 접근은 지각에 제한되고 정당화의 문제가 개입되므로 대상지칭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의 본질이 밝혀진 후에 지식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

표상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본격적 출발을 프레게에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동일성을 사물과 사물 사이가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로 전환하고, 그 관계의 인식적 측면, 즉 'a=a'와 'a=b' 사이의 차이를 언어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뜻(sense)을 매개로 한 삼원적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즉 프레게의 공헌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칭의 관계를 마음과 세계(대상) 사이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대상) 사이로 전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관념이나 인상이 아니라 '뜻'이라는 언어적(의미론적)인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의 다음의 말이, 표상에 있어서 인식적 접근이 언어적 접근으로 이행하도록 만든 정황을 잘 보여 준다.

고유이름의 지칭체(referent)는 그 사물 자체인데, 그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시(designate)되어진다. 이 경우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관념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이름과 대상 사이에 뜻이 있는 바, 그것은 관념처럼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물 그 자체도 아니다.¹⁶⁾

프레게에 의하면, 뜻은 관념이나 인상처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사물처럼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은 언어 사용자가 포착하는 바의 ‘공통적 속성’이다. 그 속성이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지칭하게 한다. 이리하여 프레게는 표상에 대한 언어적 접근의 문을 열어 놓았다.

릿셀은 자신의 이름론에 프레게의 ‘뜻’을 도입하여, 고유이름의 뜻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구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언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의 계기를 제공하고, 현대 철학을 의미론 중심의 언어철학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의 언어분석은 대상지칭에 대한 의미론적 탐구인데, 그것은 특히 표상론에 있어서 인식적 접근에서 언어적 접근으로 전환한 결과라는 것이다. 언어를 통한 세계의 표상이 언어철학자들의 작업의 근저에 깔려 있던 문제였고, 그것이 분석철학에 강한 ‘칸트적 경향’을 갖게 했고, 현시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과 극단적 대비를 이루어 왔다는 것도 지적할 만한 일이다.³⁷⁾

표상의 심리적 접근은 마음과 세계를 연결하는 내용을 심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식적 혹은 언어적 접근에 있어서 각각 관념과 의미를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보면 심리적 접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상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브렌타노의 지향성의 개념과 관련해서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브렌타노의 유명한 문장들을 다시 보자.

모든 정신적 현상은 중세기 교부철학자들이 어떤 사물의 ‘지향적 (혹은 심적) 내재’ 라고 부른 것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애매함을 피하지 못하면서, 내용에 대한 지칭, 대상에의 방향성, 혹은 ‘즉자적 대상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모든 심적 현상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그 안에 포함한다....³⁸⁾

대상지칭의 심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위의 글에서, 브렌타노는 ‘지향적 내재

36) “마음에 속한 것”은 “subjective”의 의역임. Frege,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pp.59-60.

37) 카르납의 ‘세계의 논리적 구성’, 콰인의 ‘번역의 불확정성’, 데이비드슨의 ‘개념체계’, 퍼트남의 실재론의 논의도 이런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

38) F. Brentano,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intentional inexistence)'나 '즉자적 대상성(immanent objectivity)'을 풀어 쓰면서 '내용에 대한 지칭'과 '대상에의 방향성'을 동의어로 사용함으로써, 지향성을 대상에 대한 지칭과 동시에 내용에 대한 지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대상을 심적현상 내부에 포함한다'는 언명과 "사고의 대상(object of thought)"에 대한 그의 설명이 지향성에 대한 표상적 해석의 문을 열었다.³⁹⁾

그런데, 머릿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표상론이 오늘날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전개되고 있다. 그 전개는 표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기인하는데, 그것은 포도어의 "사고의 언어"의 가설이 잘 대변한다. 즉, 심리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결합된 언어-심리적 접근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표상론이 택하는 대상지칭에 대한 탐구방식이다. 포도어를 위시한 대부분의 심적표상론의 지지자들은 마음의 대상에 대한 지칭은 심적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언어적 정보처리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포도어의 심적표상론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접근의 중심 사상을 고찰해 보자.

포도어의 심적 표상론은 촘스키(N. Chomsky)의 "내재의 가설(innateness hypothesis)"과 기능주의적 심리론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모든 언어의 구성요소나 속성에 필연적으로 깃든 원리, 조건, 그리고 법칙"⁴⁰⁾으로서의 보편문법이 인간에 내재한 속성이라는 촘스키의 가설은, 심적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구문 및 의미론적 속성을 가진 개항(token)문장이라는 포도어의 믿음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포도어에 의하면, 믿음은 명제태도이고, 명제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내적 언어인데⁴¹⁾, 그 내적언어의 구문 및 의미론적 속성을 포착하므로써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적 언어의 속성의 포착이 곧 포도어가 말하는 심적 표상이며, 그것은 마음의 내부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때로 '내적 표상'이라고 일컬어진다. 촘스키의 가설은 심적 내용을 명제태도와 관련한 언어적 표상으로 간주하게 하는 근거를 포도어에게 제공하고 있다.

39) 이 점은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의 영역본의 각주에서 치즘이 지적하고 있다. 치즘은 브렌타노가 후에 '내용'보다는 '대상(object)'를 선호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40) N. Chomsky, *Reflection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1975, pp.28-34.

41) J. Fodor, *Representation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6, p. 168.

기능주의는 어떤 개체나 그것의 심적 행위를, 먼저 그 개체와 관련된 내적 상태를 상정하고, 그리고 그 상정된 상태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능주의적으로 볼 때, 어떤 유형의 심적 상태는 어떤 유기체가 갖는 내적 상태에 있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인과적 관계 혹은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역할이다. 기능주의가 포도어의 심적 표상론에 제공하는 바는, 인과관계를 통한 내적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의 접촉이다. 이 점은 특히 네드 블락(N. Block)의 다음의 말이 잘 드러난다; “고통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관계에 의해서만 외부의 실제세계와 관련 맺는 추상적 인과의 성질과 동일시된다.”⁴²⁾ 기능주의는 포도어에게 내적 표상이 외부의 실제세계와 연결되는 길을 열어 주는데, 그것은 물론 감각적 자극의 입력과 행동적 반응의 출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장해 준다.

포도어는 내적 표상에 기능주의를 결합함으로써 내용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칭의 관계를 첨가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 혹은 명제태도를 추상적인 것의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장의 개항들 사이의 인과적 역할의 관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어떤 유기체가 명제와의 어떤 인식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유기체가 명제를 표현하는 어떤 개항적 문장(formula)과의 인과적 혹은 기능적) 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그가 표상론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있다. 즉 그는 대상지칭에 대한 명제태도적 혹은 일상적 심리학을 견지 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경험과학적 혹은 인지적 심리학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촘스키의 언어내재의 가설과 기능주의적 심리론을 배경으로, 프레게의 명제태도를 튜링기계의 모델에 접착시키려는 포도어의 시도는 전산적 심리론(The Computational Theory of Mind)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의 다음의 말이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프레게는 명제를 이해한다(apprehend)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감각적 지각도 아니고... 내관도 아니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유기체와 명제 사이의 기계적 관계인데, 그 둘을 매개할 것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적 표상 밖에 없다.... 현대의 인지심리학은 결국 표상적 심리론의 재현이다.... 그것은 마음을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본다.⁴³⁾

42) N. Block, "What is Fuctionalism", in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 175

포도어의 전산적 심리론은 표상론의 가장 최근의 변형인 대상지칭에 대한 전산적 접근이라고 불리울 만하다. 즉, 그것은 대상지칭을 컴퓨터의 정보처리의 기능에 비추어 설명하는 이론이다. 포도어 이후에 혹은 그와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기능주의와 신경심리학과 정보처리모델의 출현하고,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표상적 심리론이 대두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것들을 다룰 수가 없으나,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 포도어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상론의 일반적 성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놓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표상론이 무한소급이나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은, 표상론의 삼원적 구조에 내재한 논리적 귀결이다. 현시가 이원적 관계의 신비에 의존하는 반면에, 표상은 삼원적 관계의 체계나 구성에 의존하는데, 그 관계구성은 현시에 의존하지 않는 한 무한소급이나 순환에 빠진다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표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상지칭론으로서의 표상론이 갖는 일반적 형식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가 있다.

어떤 것, S가 어떤 것, x를 대상으로 지칭한다 =df 어떤 체계 p가 있는 바, (a) S가 p를 수용하고 (b) p의 속성이 이러한 바, 즉 (i) p가 오직 x와 만 관계되고, (ii) p는 x와 일치한다(혹은 x를 드러낸다).

이 일반형식을 믿음에 적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것, S가 x를 F라고 믿는다 =df 어떤 체계 p가 있는 바, (a) S가 p를 수용하고 (b) p의 속성이 이러한 바, 즉 (i) p가 오직 x와만 관계되고, (ii) p는 Fx와 일치한다(혹은 x가 F임을 드러낸다).

위의 일반형식의 변수들에 무엇으로 값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표상의 다양한 접근과 이론이 생겨난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S를 인식의 주체로, p를 관념이나 인상, 그리고 x를 감각적 사물로 대체하면, 위의 표상의 일반형식은 인식적 접근의 특수한 양상을 갖는다. 언어적 접근은, S를 언어적 표현, p를

의미론적 체계, 그리고 x 를 외부의 대상물로, 심리적 접근은, S 를 의식의 주체로 p 를 심적내용으로, x 를 외부의 대상물로, 각각 대체한 것이다. 개별적인 철학자의 경우, p 는, 록크에게 있어서 관념, 프레게에 있어서 뜻, 포도어에게는 ‘사고의 언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상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위의 일반형식의 변수의 값으로 무엇을 부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 값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다. 나는 위에서 표상론을 삼원적 구조의 대상지칭론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 구조는 이원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함의한다. 즉, S 와 p 사이(일반형식에서 (a)), 그리고 p 와 x 사이의 관계(일반형식에서 (b))들이다. 편의상,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전자를 ‘내적 표상’ 후자를 ‘외적 표상’이라고 부르자. 표상론의 대상지칭론으로서의 성공의 관건은 두 관계의 올바른 설정에 있는데, 특별히 외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어떤 표상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상적 관계가 제시되었다.

1. 반영적 표상(pictorial representation): p 가 x 의 인상(image)이거나 p 가 x 를 영상으로 드러낸다. p 가 x 와 유사하고 p 가 S 에 포착되므로 x 가 S 에게 반영되는 표상의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이론이 대표적이고, 오늘날의 그림영상(pictorial image)이 이에 해당한다.⁴⁴⁾

2. 전달적 표상(transmittal representation): x 의 속성의 전부나 일부가 p 를 거쳐서 S 에게 전달되는 표상의 방식이다. p 가 x 의 속성을 포함하거나 x 의 속성이 p 속으로 들어 오고, 그 속성을 S 가 포착한다. 버클리의 관념과 흄의 인상(impression), 그리고 현대의 감각적 소여론이 이에 속한다.

3. 해설적 표상(interpretive representation): p 는 x 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표상하는 체계이다. 범주적 그리고 의미론적 해석의 두 종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x 를 개념적이거나 언어적인 것으로 재구성하여 S 에게 보여 주는 표상의 방식이다. 칸트의 범주와 의미론적 해설이 이에 해당한다.⁴⁵⁾

44) 참조: N. Block, *Imager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1.

45) 참조: R. Aquila, *Representational Mind: A Study of Kant's Theory of Knowled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4. 인과적 표상(causal representation): p 는 인과적 과정이나 체계로서, x 가 p 에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 때에만 S 에게 x 가 포착된다. x 로 인하여 p 의 내부에 어떤 특정한 상태가 조성되고, 다시 그 특정한 상태로 인하여 S 가 x 를 포착하는 표상의 방식이다. 포도어의 심적 표상론과 전산적 표상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상의 네 표상방식은 지금까지 제시된 표상론의 성격들을 대비한 결과로 이루어진 분류이다. 그 각각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특크의 경우과 같이 전달과 인과의 두 표상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포도어의 경우처럼 해석적이며 동시에 인과적인 표상론도 있다. 위의 구분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가능한 표상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상론의 난점에 대한 논의를 다음의 일상적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자. 나는 이 글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읽고 있는데 당신은 그들 중의 하나이다. 당신은 이 방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나는 이 방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의 이름이 철수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철수는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여, 나의 당신에 대한 믿음이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당신에 대한 것이 된다. 어떻게 그것이 표상을 통해서 가능한가?

반영적 표상은 이 물음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먼저, ‘당신이 음악을 좋아함’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영은 영상이 만들어 질 수 없는 경우, 즉 감각적 지각이나 그것의 연장이 아닌 경우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내가 당신과 관련해서 갖는 영상은 당신의 모자쓰고 있음 밖에는 없다. 즉 위의 일반형식에서 ‘ p 의 체계가 있음’의 존재적 규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각적 지각의 경우처럼 비록 그런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형식에서, x 와 p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한 두 난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유사함을 정의함에 있어서의 애매함이다. 마음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과 그 사물과 관련된 나의 영상 사이의 유사함을 어느 선에서 규정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나의 당신에 대한 영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만 대한 영상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영상적 표상은 위의 (b)의 (i)에서 제시된 개별적 포착(identifying)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대상지칭의 문제의 원점으로 되돌아 가지 않으면 안된다.

전달적 표상은 추상적 속성과 관련된 지칭을 설명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고 믿는 것은, 그 장미가 가진 아름다움의 속성이 인상이나 관념의 형식으로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 오고, 그리고 그 속성을 당신이 포착함으로써, 장미의 아름다움의 사태가 표상된다. 그러나, 이 방식의 표상도 순환에 빠져 든다. 왜냐하면, ‘어떻게 p의 속성이 x의 혹은 x로부터의 속성인가’ 즉 ‘어떻게 p의 인상이나 관념이 다른 것이 아닌 x에만 관한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 때문이다. 위의 예로 다시 돌아가면, 음악을 좋아함의 속성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속성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S가 p와 더불어 x를 포착함이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시가 없는 전달적 표상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다.

해설적 표상은 범주나 언어가 매개체가 되므로 위의 두 방식에서 제기되는 개별화의 난점은 피할 수가 있다. “고양이”가 고양이에게만 관계되는 것은 한국어의 사용체계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양이”의 의미가 고양이를 드러내거나 “고양이”가 고양이를 표현하는 것은 그 체계가 보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언어의 체계, p에 있지 않고, 언어 사용자인 S의 의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그 라이스(Grice)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미 잘 보여준 바이다. 뿐만 아니라, 퍼트남(Putnam)이 지적하였듯이 “물”의 의미가 H₂O만을 드러낸다는 보장도 없다. 의미에 환경의 문맥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기술구가 고유이름의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지 않음도 크립키가 잘 보여 준 바이다. 이러한 비판은 해설적 표상이 (b)의 (ii)의 일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함을 보여 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p와 x의 일치는 그것을 보장해 줄 어떤 제 삼의 체계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라이스의 경우는 의사전달의 체계를, 퍼트남의 경우는 H₂O와 XYZ를 포괄하는 과학의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체계는 (b)의 (ii) 내부에서 다시 삼원적 관계를 구성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체계가 요구될 것이다. 결국 무한 소급에 빠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S가 p를 통하지 않고 직접 x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p의 x와의 일치는 S가 그 둘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과적 표상, 특히 포도어가 제시하는 전산적 표상의 난점은 이미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p가 개항적 문장과 그것의 인과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구문적 체계인데, 어떻게 거기에

의미론적 내용이 깃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어, 튜링식의 기계적 과정이나, 내재인(homunculus)이나, 신경세포의 연결에 의해서거나,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행동적 출력이 이루어질 때, 명제적 태도의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 속에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전산적 표상론이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⁴⁶⁾ 즉, 어떻게 “고양이”의 개항이 고양이를 의미하는가의 문제가 다시 생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곧 표상론이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최초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문제의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포도어는 그의 『심리의미론』(*Psychosemantics*)에서 의미에 대한 자연주의적 이론을 주장하면서, “물”이 H₂O를 표현하는 것은 “물”의 개항이 물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위 그의 “원초적(crude) 인과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호의 개항은 그 기호의 원인을 지시하고, 기호의 유형은 그 속성의 예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 개항의 원인인 그런 속성을 표현한다”.⁴⁷⁾ 다시 말하면, 어떤 기호가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것은 그 속성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경우만이 그 기호의 개항의 원인이 되는 어떤 법칙적 관계가 있을 때라는 것이다. 이 대답은 그릇된 표상 혹은 지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 결점이 있지만, 여전히 대상지칭의 문제, 즉 어떻게 “나의 ‘말’의 언명이 다른 어느 것이 아닌 어떤 말에 대한 것을 표현(my utterance of ‘horse’ says of a horse that it is one)”하는가에 해답을 제공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포도어도 인정하듯이, 인과론의 배후에는, 심적 기호의 의미론적 해석이 어떤 법칙적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직관이 있는데, 포도어의 주장의 난점은 심적 언어와 외부 사물과의 의미론적 관계를 인과론적 관계로, 그리고 다시 그것을 그런 관계의 어떤 법칙으로 논제를 바꾸었을 뿐 문제의 해결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속성의 예시와 기호의 개항 사이에 그런 인과적 관계의 법칙이 성립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다시 무한소급의 나락이 시작된다.

나아가서, 그런 인과적 관계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호의 개항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되고, (2) 그 속성이 그 개항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x”의 개항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x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없다. 이 난점은 해석적 표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문제이다.

46) 쉘의 “중국어의 방”의 반례, 그리고 S. 스티취의 구문적 심리론 참조.

47) Fodor, *Psychosemantic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87, p. 99

표상의 각 방식과 관련하여 그것들이 대상지칭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환이나 무한소급에 빠진다는 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상의 삼원적 구조에서, 유사, 전달, 해석, 인과의 어느 방식이든지, S, p, x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는 현시가 개입하여 관계항 사이를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항 사이의 관계에서 순환하거나 다시 삼원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무한소급에 빠진다. 내적 혹은 외적 표상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매개를 거치지 않은 현시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나와 외부에 있는 대상 사이의 지칭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

특히 외적 표상인 경우, p와 x의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착함이 없이, 그 둘 사이의 유사성과, 동일한 속성의 확인과, 해석에 있어서의 일치와, 인과관계의 항 사이의 연결, 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나의 당신에 대한 관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신에 관한 것인가의 문제의 해결을, 현시라는 직접적 지향성에 의하지 않고 그 시대의 과학이 제공하는 개념들(인상, 의미, 문장개항)을 이용하여 매개를 통하여 우회하는 시도는, 그러나, x에 대한 S의 어떤 방식으로의 인식적 관계맺음이 없이 성공할 수가 없다. 표상은 마음의 외부의 것에 관련됨이 없이 언제까지나 헛돌 뿐이다.

결론

칸트는 “내용이 없는 사고는 비어있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눈 멀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표상론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 그 앞 부분은 현시론의 비판으로, 뒷부분은 표상론의 테제로 이해되어도 좋을 것이다. 칸트가 ‘비어있다’ 혹은 ‘공허하다’ 라고 한 것을 윌리엄 제임스는 “신비적이다”, 퍼트남은 “너무 쉽고 빠르다”, 그리고 C. 맥긴(C. McGinn)은 “비어있는 뇌에서 지향성이 나올 수 없다”⁴⁸⁾ 라고 표현한다. 현대의 언어 심리철학에 칸트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마음과 세계 사이의 지칭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념적 혹은 형이상학적 분석에 종사하는 철학자이면, 누구나 그 관계의 근저에 더 이상 정의될 수 없는 심적 행위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적 분석의 어느 선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의될 수 없는 자명하거나 근원적인 어떤

48) C. McGinn, *Mental Content*,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9, p. 192.

것을 그러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철학적 논의나 설명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그렇다” 혹은 “나의 용어에서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다”라고 말하여 순환이나 무한소급에 빠져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철학의 논구(discourse)가 노이라스(Neurath)의 뗏목처럼 하염없이 떠돌 수 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시를 가정함이 신비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 들이자. 그것이 철학적 이론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점인가? 어떤 철학적 논의가 그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을 모두 정의할 수가 있는가? 순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철학적 탐구는 그러한 신비를 극소화할 수 있을 지언정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철학이 아닌 다른 학문이나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상황은 별로 나을 게 없다. 심적 현상을 뇌의 상태로, 뇌의 상태를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면 마음에 대한 철학적 규명에 그러한 신비가 제거되는가? 그러나, 원자 물리학은 어느 단계의 미립자에서, 우주 물리학은 ‘거대한 폭발(Big Bang)’에서 이상 더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멈추어 있다. 거대한 폭발의 신비의 값을 치루고서도, 현대 물리학은 적어도 물리적 영역 내에서의 많은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개념적 분석과 논리적 관계의 규명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려는 철학자가 노력할 것은, 결국, 가장 작고 기본적인 것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일이다. 나는, 치즘의 귀속론이 브렌타노의 지향적 내재보다, 그리고 현시론이 그의 귀속론보다, 더 작고 기본적인 것을 가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상은 문제의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순환에 빠지고, 삼원적 관계의 설정은 매개적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때로 철학적 논의의 풍부함을 보이지만, 특히 칸트와 포도어가 그렇지만, 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무한소급을 피할 길이 없다. 표상론은 대상지칭의 문제를 두고 헛돌고 있다. 내용이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음은 현시에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름과 고유명사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상을 지향하지 않는 사고는 처음부터 사고가 아님은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토마스 리드와 브렌타노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상이 없는 사고는 불가능하고, 현시가 없는 직관은 헛돌 뿐이다.”